정찬주 역사대하소설 **아쇼까대왕** 53

▶ 54회 예고
아쇼까의 어린 동생 비가따쇼까가 빈두사라왕에게 간청하여 아쇼까는 특별 휴가를 받는다. 강가강에서 기도해 왔던 다르마 왕비는 기뻐서 눈물을 흘린다. 한편 담마팔 사문은 데바 부인의 편지를 받고는 산치 절로 돌아간다.



칼라따까와 라다굽따, 모사를 꾸미다

빠딸리뿌뜨라는 여전히 활기가 넘쳤다. 강가강을 통해 들어온 이집트나 페르시아의 물품들은 물론 잠부띠바의 토산품들이 외성 저잣거리에 넘쳐났다. 여인들은 까시산(産) 붉고 노란 비단사리를 화려하게 걸치고 다녔다. 흰색 도티 차림의 청년들은 달리는 수레 안에서 여인들을 구애하듯 크게 노래 불렀다.

다만, 활력이 넘치는 빠딸리뿌뜨라 이면에 그늘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빈두사라왕의 오래 된 지병이었다. 빈두사라왕은 정복전쟁을 치르면서 생긴 심장병을 앓았다. 병은 나이가 들수록 심해졌다. 심장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오거나 갑자기 무기력해지곤 했다. 빈두사라왕의 지병이 도질 때마다 측근 대신들은 초조해했다. 수년째 궁중의원들이 치료해왔지만 지병이 개선될 기미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대신들 중에서도 수상 칼라따까와 제관 라다굽따는 특히 마음을 졸였다. 작년에 수시마가 특별휴가를 받아 빠딸리뿌뜨라에 와 있을 때는 더욱 불안해했다. 몇 년 전만 해도 서로의 저택으로 찾아가 은밀하게 의논했는데, 작년부터는 왕궁 안에서도 둥근 대리석 기둥 뒤에 숨어 머리를 맞대고 수군거렸다. 그날도 칼라따까와 라다굽따는 왕궁 안에서 만나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이러다가 수시마 왕자가 왕궁에 눌러앉아버리지 않겠소?"

"다르마 왕비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을 겁니다. 아쇼까 왕자가 웃자인에서 고생하고 있으니 몹시 불공평하다고 여기시지 않겠습니까?"

"제관 동지의 말씀을 듣고 보니 조금 안심이 되오."

"우리가 있으니 대왕님 마음대로는 하시지 못할 겁니다. 다르마 왕비님의 눈치도 보지 않을 수 없겠지요."

"수시마 왕자가 탁실라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한다는 소문이 들리고, 대왕님께서는 수시마 왕자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싶어 하시니까 신경이 쓰여 그러지요."

두 사람은 맞은편에서 누가 오는 줄도 모르고 얘기를 주고받았다.

"수시마 왕자가 곧 탁실라로 떠난다고 하니 지켜봅시다."

"우리가 수시마 왕자에게 당할 수도 있소. 이번에야말로 서둘러 해결해야 해요."

칼라따까가 해결한다는 말은 아쇼까를 불러들이자는 뜻이었다. 아쇼까를 빠딸리뿌뜨라로 불러들인 뒤, 아예 빈두사라왕의 유고시까지 왕궁에 살도록 모사를 꾸민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당장 묘수를 찾아낸 것은 아니었다. 아쇼까의 어머니인 다르마 왕비의 힘을 빌려야 했다.

"아무래도 아쇼까 왕자를 부르는 것은 다르마 왕비님께서 해주셔야 할 것 같소. 만약 우리가 대왕님께 직접 건의했다가는 눈밖에 벗어날 수 있으니까요."

"수상 동지께서 다르마 왕비님을 한 번 만나보시겠습니까?"

"아니오. 다르마 왕비님은 동지를 더 신뢰하시는 것 같으니 제관님이 가보시는 것이 어떠하겠소?"

"좋습니다. 그럼, 제가 때를 보아 왕비 별궁으로 가보겠습니다."

두 사람은 왕궁을 지키는 친위대장을 보고서야 헤어졌다. 친위대장은 두 사람의 동태를 수상히 여기고 가까이 왔다가 돌아섰다.

며칠 후.

라다굽따는 왕비 별궁으로 찾아갔다. 정원에서 비가따쇼까를 데리고 있던 락슈미띳사가 라다굽따를 맞이했다. 비가따쇼까는 키가 훌쩍 자라 제법 의젓했다. 외모는 커갈수록 빈두사라왕보다는 다르마 왕비를 닮아가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라다굽따는, 비가따쇼까가 집착이 유난히 강한 빈두사라왕을 닮은 것 같다고 다르마 왕비에게서 들었던 말이 생각나 하나밖에 없는 아쇼까의 친동생이었지만 약간은 조심스러웠다. 빈두사라왕은 영토확장이나 여인들에게 지나칠 만큼 끊임없이 집착했던 것이다. 충직한 시녀 락슈미띳사가 다가와 말했다.

"요즘 왕비님은 아무도 만나지 않으시려고 합니다. 심기가 불편하십니다."

"대왕님 건강이 좋지 않아서인가?"

"그것도 이유입니다만 다른 고민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라다굽따는 짐작하는 바가 있어서 물러서지 않았다.

"왕비님께 말씀을 드려 보게. 잠깐만 뵙고 가겠다고 말이네."

"제관님, 여쭤 보겠습니다."

락슈미띳사가 왕비 별궁으로 들어가자 비가따쇼까가 다가와 말했다.

"저는 어머니께서 왜 아프신지 알고 있어요."

"왕자님, 왕비님께서 아프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제 추측이 아니라 어머니께서 내게 말씀하셨어요."

10살도 안 된 비가따쇼까는 어른스러웠다. 라다굽따 마음을 간파하고 있는 것도 같았다. 비가따쇼까가 말했다.

"어머니께서는 아쇼까 형님을 기다리시고 있어요. 몇 년째 기다리시다가 병이 나신 거죠. 어머니 꿈은 아쇼까 형님과 내가 우애 있게 지내면서 대왕님을 가까이서 보좌하는 거예요."

라다굽따는 속으로 혀를 내둘렀다. 비가따쇼까가 자기 생각을 명석하게 표현하는 태도는 어른과 흡사했다. 아쇼까와 비가따쇼까가 형제애를 발휘해서 합심한다면 마우리아왕조의 영광은 길이 빛날 것만 같았다.

"어머니는 제관님을 믿으시니까 반드시 만날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비가따쇼까 왕자님, 든든합니다."

"든든하긴요, 제관님은 우리 편이죠? 수시마 형님 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왕자님, 왕궁에서 절대로 그런 말씀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아쇼까 왕자님이나 왕자님에게 피해가 갈지 모르니까요."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셔요. 저도 알만큼 아니까요."

락슈미띳사가 웃으며 다가왔다.

"제관님, 왕비님께서 모시고 오라고 하십니다."

"왕자님, 약속을 지키셔야 합니다."

"제관님, 저는 담마팔 스승님에게도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비가따쇼까는 왕비 접견실로 따라 들어오지 않았다. 담마팔 스승을 만나 산스끄리띠어와 별자리를 공부할 시간이라며 왕자들 별궁 쪽으로 뛰어갔다. 다르마 왕비는 며칠 동안 누워있던 환자답지 않게 정갈한 모습으로 라다굽따를 반겼다.

"제관님, 어서 오세요."

"조만 간에 아쇼까 왕자님을 반드시 빠딸리뿌뜨라로 오시게 할 테니 건강하셔야 합니다."

"아쇼까만 생각하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것 같고, 한숨이 나와요. 한숨을 내쉬어도 가슴이 답답할 뿐이지요."

"느긋한 마음으로 기다리셔야 합니다. 대왕님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 일이니까요." "대왕님 마음이 움직일 수 있을까요?"

수시마를 편애하는 것도 모자라 아쇼까를 경계하는 빈두사라왕이었다. 그러니 빈두사라왕의 마음이 바뀐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왕비님, 수시마 왕자님이 특별휴가를 받아 빠딸리뿌뜨라에 왔다가 간 적이 있습니다. 아쇼까 왕자님도 특별휴가를 달라고 대왕님께 말씀하십시오."

"그렇게라도 해서 내 아들 아쇼까가 다녀간다면 원이 없겠습니다."

"대왕님께서 특별휴가마저 반대하실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아쇼까가 빠딸리뿌뜨라로 돌아와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왕님께서 허락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더구나 웃자인은 아쇼까 왕자님이 통치를 잘하시어 마우리아국 어느 소국들보다 평화롭습니다. 소요나 반란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다르마 왕비가 한숨을 길게 내쉬자, 락슈미띳사가 찬물이 든 사발을 가져와 왕비에게 바쳤다. 다르마 왕비가 찬물을 들이켰다.

"제관님, 속에서 불같은 뜨거운 것이 올라올 때는 찬물을 마시곤 한답니다."

라다굽따는 다르마 왕비를 위로했다.

"왕비님께서 아쇼까 왕자님의 특별휴가만 허락 받으신다면 그 다음은 저희들이 책임지겠습니다."

다르마 왕비가 일어서려다 말고 다시 주저앉았다. 라다굽따가 책임진다는 말은 아쇼까가 웃자인으로 돌아가지 않고 빠딸리뿌뜨라에서 가족과 함께 산다는 의미였던 것이다.

"제관님, 믿어도 될까요?"

"왕비님,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왕비 별궁을 나온 라다굽따는 왕궁으로 가지 않고 자신의 저택에서 어두워질 때까지 시간을 보냈다. 강가강 쪽에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다. 강바람이 낮 동안에 뜨거워졌던 대지를 식혔다. 왕궁 정원의 나무와 꽃들이 생기를 되찾았다. 내성과 외성을 오가는 사람들의 발걸음도 사뭇 여유로워졌다. 젊은 남녀들이 탄 수레는 속도를 내어 달렸다. 그러다가 수레끼리 부딪치는 가벼운 사고가 나기도 했다.

라다굽따는 천천히 수레를 몰아 칼라따까 저택에 도착했다. 가끔 들렀던 칼라따까 저택이었으므로 지름길을 알았다. 칼라따까가 라다굽따를 귀한 손님처럼 정중하게 맞았다.

"제관이시여, 오늘은 무슨 희소식을 가지고 왔소?"

"왕비님께서 대왕님께 아쇼까 왕자님의 특별허가를 허락받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라다굽따는 칼라따까의 저택 2층으로 올라갔다. 칼라따까와 은밀한 대화를 나눌 때마다 사용했던 2층 거실이었다. 칼라따까가 야릇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특별휴가만 받으면 우리 계책대로 진행되겠지요."

"저도 그렇게만 된다면 그 다음은 우리가 책임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왕비님이 기뻐하셨겠소. 그러나 왕비님이 원하는 바는 우리와 다르지요. 왕비님은 아쇼까왕자와 빠딸리뿌뜨라에서 함께 살겠다는 것이고, 우리는 아쇼까 왕자님을 왕으로 추대하겠다는 것이니까."

"수상이시여, 그것은 수시마 왕자를 탁실라에 묶어두어야만 가능합니다."

라다굽따는 수시마를 탁실라에 묶어두기만 한다면 빈두사라왕도 어쩌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칼라따까는 이미 계책을 세워두었다는 듯 미소를 지었다.

"걱정할 것 없소. 수시마 부왕이 특별휴가를 받아 빠딸리뿌뜨라에 와 있는 동안 탁실라에 부왕 대리로 파견했던 특사가 나의 심복이라오."

"그가 수시마 왕자를 어떻게 움직이지 못하게 끔 한다는 말이오?"

"물론 수시마 왕자는 부왕이고 그는 수시마의 명을 받아야 하는 특사일 뿐이오. 그러나 내 심복인 특사는 지금쯤 수시마 통치에 반감을 가진 성민들을 은밀하게 회유하고 매수했을 것이오. 내가 지시만 하면 소요를 일으킬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이오. 소요가 일어났는데 수시마 왕자가 어떻게 이곳으로 오겠소? 설령 대왕님께서 부르신다고 해도 오지 못하겠지요."

"기가 막힌 계책이오!"

라다굽따는 칼라따까를 보면서 무릎을 쳤다. 자신의 심복을 특사로 파견한 것부터 칼라따까의 계책은 한 치의 빈틈이 없었다. 더구나 빈두사라왕은 특사를 신임했다. 칼라따까가 특사를 추천했을 때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지명했던 것이다. 탁실라 부왕 수시마도 마찬가지였다. 특사가 탁실라를 떠나지 않고 날마다 호족성민들을 만나는 데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특사는 칼라따까의 지시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계속〉

연등시공전문기업 대광불교
연등자동승강장치 최초개발시공업체
대광불교는 연등전문 기업입니다.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화등
공단등
만월등
연등 자동 승강장치
연등 시공
대광불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 E-mail : hskhsg@naver.com | 010-9446-1862 | 010-2788-7270 | 031)768-7270 | 031)768-7271